

## 한반도 핵위기와 통일신앙

김병로(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북한학)

### I. 한반도 상황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세계의 관심은 한반도로 쏠리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놓고 지금 세계가 고민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중국은 3자회담(2003.4)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두 정상은 북핵해법에 관한 회담(2003.5)을 가졌다. 또 미국과 일본간에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그 동안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위시하여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축출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라크 상황이 안정을 찾으면, 이란이나 북한이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동결했던 8,000여 개의 핵연료봉을 거의 재처리했다고 으름장을 놓음으로써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곧 군사공격이다”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만약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가장 먼저 핵무장을 할 것이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진짜 가졌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영변의 핵시설을 기습적으로 폭파해버릴까, 아니면 경제제재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까, 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 주면서 핵무기 수출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출까 하는 방안까지 여러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핵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등장한 소위 '불량국가'들의 문제이다. 특히 9.11테러 사건 이후 '악의 축'으로 대변되는 테러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자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고, 위협의 소지가 있으면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로, 미국은 대중국 정책의 관점에서 핵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을 주변국으로부터 봉쇄한다는 전략에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따돌리고 친미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화교권의 반미주의가 형성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화교권이 반미주의로 돌아선다면 회교와 화교가 연대하여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새뮤얼 헌팅턴이 우려한 '문명의 충돌'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이 대화로 핵문제를 풀어가길 원하며, 미국은 북한핵개발 저지를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군사적 방법이 아닌 경제제재, 해상봉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 핵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58년 간 남북으로 분단된 땅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의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며 통일과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한반도 상황과 통일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통일신앙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통일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 II. 통일신앙 I: 평화와 화해

(1) 북한의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남한사회는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진 남남갈등은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진보와 보수로 대결하는 남남갈등의 한복판에 바로 교회가 자리잡고 있다. 남한사회에 진보와 보수의 두 흐름은 197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참여 문제를 두고 형성되었다. 이 두 흐름이 형성되는데는 남한교회의 역할이 컸다. 지난 3.1절 집회에서도 남한교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별도의 두 집회를 개최하였다. 보수교회는 ‘반핵, 반김’ 국민대회를 이끌었으며, 진보교회는 촛불시위나 ‘3.1민족대회’를 주도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케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근본주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북한과 북한공산주의를 ‘사탄’으로 규정하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멸절시켰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평화적이었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경고한 비폭력적인 방법이었다. 전쟁이나 무력의 방법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이 예수님이 추구했던 중심적 사상이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나 평화적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최소한 우리 군인 50만명과 서울시민 10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전쟁시물레이션에 의해 과학적으로 나온 수치이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된다. 이러한 재앙이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미 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에서부터 국교정상화까지,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미사일수출금지외 핵폐기를 ‘단계적 일괄타결’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이 강경하기는 하지만 현재 국방부와 국무부의 강온입장 사이에서 유동적인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방법과 대화의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문제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서 부탁하셨던 화해와 평화의 말씀을 우리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하나의 이유는 핵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국내에 심각한 반미정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2년 전과 비교할 때 30.5%에서 18.9%로 떨어졌다. 이러한 반미정서는 남한내 복음화나 북한선교에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 사람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기독교를 미국의 종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반미감정은 북한선교에서 큰 문제이다. 북한의 반미감정은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러한 반미감정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교회는 미국과의 신뢰를 지키고 신앙적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나치게 ‘친미’적이라든가 ‘반민족적’이라고 비취진다면 통일이후 한반도에서 복음전파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한국기독교의 민족성과 한국성을 강조하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북한선교를 위해, 그리고 남한의 새로운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한국적 문화 속에서 신앙에 모범을 보인 인물을 찾아 ‘기독교의 나라사랑’과 ‘기독교의 애국적 신앙’에 대한 역사적 뿌리를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손양원 목사와 주기철 목사, 김구선생, 조만식 장로와 같은 분들의 신앙노선과 삶을 더 깊이 탐독하고 묵상해야 한다. 또 1900년대 초 개화시기에 사회변혁을 주도했던 선각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과 신앙의 모델을 발굴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가 이러한 한국의 신앙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통일 이후, 반미의식이 강한 북한지역에 복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그리스도인은 남북민족의 화해를 선포해야 한다.

민족은 the ethnic과 nation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The Ethnic(민족)은 언어, 지역, (혈통), 역사, 경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실체이며, Nation(민족, 국민)은 근대 정치체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동체 의식을 갖는 집단을 가리킨다. 남북한에서 민족의식이 각자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받아 독특한 민족(국민)의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식을 가진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남북한간에 민족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가? 남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하는 점이 많다. 남북한이 공유해온 역사와 전통, 문화는 남북한 국민들에게 독특한 감정을 갖게 하며 공동체형성의 큰 자산이 된다. 국가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언어로 상징화하여 집단정체성과 일체감을 만들어 내며 통합의 중심점을 형성한다. 그러나 남북의 공동체 형성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남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이다. 이 적대의식은 대부분 한국전쟁으로 인해 증폭되었으며, 분단대결 구조로 인해 강화되어 왔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화해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한국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남북한 민족에게 용서와 화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남북한은 치유하기 힘든 큰 상처를 입었다. 남한은 85만명, 북한은 113만명(혹은 175만명)이 사망하는 심대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에 대한 ‘북한식 보훈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현재 전쟁피해자가 상층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세뇌교육으로가 아니라 가족관계를 통해 체험적으로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갖고 있다. 상층기득권 세력의 이러한 적대의식은 남북교류와 통일과정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북한 사람들의 이러한 상처와 적대감정을 평화의 복음으로 끌어안고 풀어가야 한다. 전쟁의 원인규명과 같은 문제는 역사적 평가로 미루고 전쟁의 피해를 서로 이해함으로써 화해를 도모해 가야 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같은 날 같은 시간을 두고 남한은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하고, 북한은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주장한다. 북한사람들은 전쟁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당함으로써 제국주의, 즉 미국과 남한에 대해 엄청난 원한과 분노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역사적 사실의 문제를 파해침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사실과는 무관한 정서적이며, 감정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적대감정을 해소하는 길은 북쪽의 피해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북한사람들은 스스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인구의 85%가 전후세대로 성장한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간의 피해를 인정해 주면서 화해한다면 남북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북쪽사람들의 전쟁상처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남북민족의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이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한국전쟁의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통일시대 기독교는 결코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 Ⅲ. 통일신앙 Ⅱ: 비전과 선교

#### (1) 대륙으로 통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우리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분단이 지속됨으로써 남한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분단은 지리적으로 남한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다. 삼면이 바다, 한면은 철조망으로, 지구상에서 이렇게 폐쇄된 나라는 없다. 사람의 의식과 가치관은 지형학적 요인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오래 살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답답해지고 배타적으로 변해간다. 우리 국민들은 지리적으로 밀폐된 공간에 놓여 꿈을 잃어버렸다. 희망을 상실했다. 우리들은 분단체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대륙진출의 꿈을 상실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비좁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평양을 지나, 중국으로, 몽골로, 모스크바로, 빠리로, 제네바로, 로마로, 차를 타고 지나갈 수 없는가? 우리는 대륙으로 진출해야한다. 대륙으로 통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체제의 대립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불안감과 불신을 내재화하고, 내면화시켰다. 남북은 이제 서로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신은 남북한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남북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안과 불신은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게될 것이다. 이것은 분단의 가장 큰 비극이다. F. 후쿠야마는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21세기 국가발전을 주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남북한은 지금 사회적 자본이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하루속히 우리는 분단과 대립을 탈피하여 화해와 평화공존의 관계를 만듦으로써 안정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륙으로 통하는 확 트인 세상, 열린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중국과 몽골,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제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좁은 땅덩이에도 갖힌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불안과 불신의 굴레에서 우리 국민들을 자유케해야 한다. 미움과 증오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참으로 자유하게 해야 한다. 분단과 대립을 화해와 평화공존의 관계로 만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되고 자유케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해방되고 자유해야, 북한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열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 시기에 북한과 협력한다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탈냉전의 세계화시대에 북한과 협력하지 않으면 남한의 경제와 사회는 낙오하고 말기 때문이다. 21세기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 남한은 북한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남북한이 통합적 시각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남한경제는 북한변수에 좌지우지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GNP의 95%가 남쪽에서 생산되고, 5%만이 북쪽에서 생산된다.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고 해도 남북간의 빈부격차와 지역갈등은 극도로 심화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문제는 결국 남한의 문제가 된다. 우리 모두가 떠 안게 된다. 이제 북한의 문제를 북한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남북통합적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남북의 통일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북한과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야 한다.

## (2) 북한의 현실에 맞는 통일선교의 대전략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북한과의 협력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한다. 정신무장이 잘되어 있는 북한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에서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부류의 선교사들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 세계 민족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단련된 청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현재 북한선교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공식교회 선교와 탈북자를 통한 지하교회 선교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식교회와 지하교회 두 방향의 선교가 서로를 불신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불신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각자 열린 틈새와 공간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식교회를 통한 남북협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공식교회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그리고 513개의 가정예배소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과거 기독교인 후손들이며 북한의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다. 신앙이 없는 척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고 이제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숫자는 12,300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신자들에 대해 “가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비록 성경지식이 없고 기독교교리에 관해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다. 주일학교 학생과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성격지식은 없지만 그들은 공산당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 부모들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왔다. 물론 거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고, 안 믿는 사람을 심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신앙을 지키려고 생애를 바쳐온 사람들이다. 누가 이들을 ‘가짜’라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런가하면 탈북자를 통한 지하교회 선교도 진행되고 있다. 과거 번성했던 북쪽 교회들을 재건하려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 북한지역 여러 곳에서 이러한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 역시 매우 연약한 상태이다. 북한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거나, 혹은

겉으로 보아서는 전혀 모르도록 위장된 그런 모임을 갖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교류와 협력이라는 활용가능한 방법을 통해 보다 전략적이며 현실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남북나눔운동, 한민족복지재단, 굿네이버스, 유진벨재단 등 많은 대북지원 기독교 NGO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며 복음전파를 위한 토양을 깊이 갈아엎고 있다. 초기 한국교회도 의료, 사회복지, 교육과 같은 혜택과 함께 복음을 받았던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 육아원, 병원, 기술정보대학과 같은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현재 감리교단과 장로교 통합교단은 ‘평양신학원’ 건축을 지원하고 있고, 장로교 합동교단은 빵공장을 지원한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지적대로 현재 북한내지 선교는 ‘사회봉사선교’에 치중하고 있다. 신의주나 개성, 원산 같은 지역에 복지센터 혹은 평화센터 건립 일환으로 교회건축이 이루어지면, 말씀선교의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다.

북한선교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북한 기독교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해방당시 30만명의 북녘 그리스도인이 모두 어디에 갔는지, 그 후손들은 어디에 있는지 뿌리를 찾아야 한다. 또 공식교회의 성격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난 이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하교회의 선교상황에 대해서도 경험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 IV. 맺는 말

한반도 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기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우리에게 민족생존을 좌우할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10년 안에 북한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북한은 탈냉전 10년 동안은 빗장을 굳게 닫아 두었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작년 7월 ‘경제개혁’ 이후 북한은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95년부터 97년까지 ‘고난의 행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지난 10년 사이 북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개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쌀 가격을 500배 올리고 임금을 20-30배 인상했다. 체제의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군사력과 핵개발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강해질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탈분단과 통일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를 맞이하여 탈분단과 통일의 미래를 내다보며, 통일선교를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 기독교의 민족성과 한국성을 강화하여 북한지역 복음화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전도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전쟁의 상처로 적대의식이 강한 북한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해를 선포하고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 분단으로 짓눌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던져주며,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북녘의 지상에서, 그리고 지하에서 힘겹게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삶의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인도적 지원과 더 많은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도우며, 그들을 방문하여 희망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북한을 돕고 그들과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국대륙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통하는 선교루트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더불어 세계선교에 쓰임 받는 존귀한 민족이 될 것이다.